

『독립신문』의 참여 인물 연구

채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 논문은 『독립신문』의 편집에 어떠한 인물들이 참여하였는가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의 논의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서재필 자서전 등의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기록에 의해 서재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밝혀진 자료들을 종합하고 재해석하며 일부 새로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새로운 자료는 서재필의 중추원 고문 계약과 관련된 문서, 선교사 할버트의 참여와 관련된 그의 서한들, 그리고 아펜젤러의 역할을 언급한 서재필의 편지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 독립신문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진 인물은 서재필, 주시경, 윤치호, 할버트, 손승용, 이준일, 아펜젤러, 엠벌리, 콧 총 9명이었다. 서재필을 포함한 한국인이 5명이고 외국인인 4명이었다. 이중 사장이나 주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시간적 순서대로 서재필, 윤치호, 아펜젤러, 엠벌리이다. 그밖에 주시경과 손승용이 초창기부터 편집에 참여했으며 할버트는 영문판 편집일을 초창기 몇 달간 맡았었다. 이들 중 손승용이 유일하게 창간부터 폐간까지 계속 참여했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준일은 회계 업무를 맡았으며 콧은 일시적으로 교정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이들 중 할버트와 콧은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할버트는 비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초창기에 잠시 참여하였고 콧은 일시적으로 교정을 도와준 인물이다.

주제어: 독립신문, 인물, 서재필, 주시경, 편집진, 할버트, 아펜젤러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근대 한국의 대표적 신문인 『독립신문』의 편집에 어떠한 인물들

* bchae@pusan.ac.kr

이 참여하였는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독립신문』은 개화기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언론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의 위상에 비해 그 신문의 편집에 어떠한 인물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언론사 분야 중에서도 인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하기는 하지만 『독립신문』의 참여 인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당시의 편집진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기록들만이 남아 있어서 이를 토대로 추정만이 가능한 정도이다. 당시의 기사들이 기명으로 게재된 것도 아니었으며 누가 참여했는지를 알려 주는 관련 기록들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자서전 등의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기록에 의해 서재필 1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

『독립신문』을 서재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신용하(1976)에 의해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이후 주진오(1991, 1986), 채백(1992), 김복수(2000) 등에 의해서 꾸준히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의해 『독립신문』의 창간이 서재필의 개인적 노력의 성과라기보다는 유길준을 중심으로 한 당시 개화세력의 주도 내지는 이들과 서재필의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독립신문』의 발행 과정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참여했는지는 아직도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독립된 주제로 다룬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관련 연구들에서 참여 인물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신용하의 연구(1976)에서 주시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제기되었으며 헐버트의 동생의 참여가 시도된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제시되었다. 정진석(1990: 152)은 헐버트의 동생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의 또다른 연구(1983: 348~351)에서는 주시경보다는 손승용이 더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니었겠나 하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김유원의 연구(1992)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독립신문』의 편집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정리한 바 있다. 국문학계에서도 관련 연구(이기문, 1990; 김인선, 1996 등)들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독립신문』을 서재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신문』 편집에는 어떠한 인물들이 참여했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물론 자료의 제약으로 본 논문에서도 『독립신문』 편집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그들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모두 다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밝혀진 자료들을 종합하고 재해석하며 일부 새로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새로운 자료는 서재필의 중추원 고문 계약과 관련된 문서, 선교사 험버트의 참여와 관련된 그의 서한들, 그리고 아펜젤러의 역할을 언급한 서재필의 편지 등이다. 이 자료들은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들이므로 알고 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독립신문』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활동 내용과 범위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련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하나의 매체가 창간, 운영되는 것은 당시의 제반 사회적 조건과 맥락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조건과 맥락이 언론매체라는 구체적인 산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참여 인물들에 의해서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메시지의 생산은 바로 이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언론사 연구에서 인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독립신문』의 참여 인물들을 규명하려는 본 연구는 『독립신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는 필수적인

1) 후술하겠지만 험버트의 동생이 참여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작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신문』의 성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2. 독립신문 편집의 참여 인물들

1) 서재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립신문』의 초대 사장은 서재필이었다. 사장이면서 주필을 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의 사장 겸 주필이라면 지면의 제작과 편집, 발행 나아가서 경영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창간 자금과 사육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신분이었던 서재필에게 사장 겸 주필의 직을 맡기고 회사도 서재필 개인의 기업으로 등록시켰던 것이다.

당시 서재필이 공식적으로 맡았던 공직은 잘 알려진 대로 중추원 고문이었다. 이 고문을 맡으면서 조선 정부는 당시 외국인 고문을 초빙할 때 했던 관행대로 서재필과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1896년 1월 13일에 당시 내각과 서재필은 중추원 고문관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각사등록 근대편』의 청의존안(請議存案) 건양원년 1월 13일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날짜 기록에 “중추원 고문관 서재필 약정서, 우 약정서 각의(閣議)에 공(供)함”이라고 적고 있다. 서재필의 약정서를 각의의 안건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 당시의 약정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쉽게도 자세한 계약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계약 내용의 개요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월 300불에 10년간 계약이었다(『한성신보』 1896년 1월 20일자 잡보 이광린, 1975: 79에서 재인용). 특별히 할 일도 없는 자리에 상당히 높은 급료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임창영이 저술한 서재필의 전기(1984/1987: 115~116)에 의하면 서재필의 중추원 고문직은 “서재필을 정부로 끌어 들임으로써 그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명예직으로 마련된

것 같은 인상”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딴 데에 있었다는 말이다.

『윤치호일기』 1898년 4월 22일조를 보면 서재필이 조선 정부로부터 해고되어 남은 계약 기간의 급여를 받고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사실을 논하면서 “이 기간 동안 그는 다른 일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During these years he wouldn't be allowed to engage in any other business)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 해석하면 그동안 서재필은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서재필도 당시 내각과 상당히 구체적인 계약으로 역할의 내용 및 범위까지 규정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채백, 1992: 302~303).

이와 같이 당시 서재필이 신문 편집과 제작에서 맡았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은 자서전(김도태, 1972: 245~246)에서 『독립신문』 창간 당시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인쇄술을 아는 이가 없었고 신문이란 ‘산’자도 모르는 터이라 경영이 여간 곤란치 않았다. 채자·조판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기자들에게도 재료 수집에 대한 모든 순서를 일일이 지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신문 파는 사람에게는 ‘신문! 신문! 매장에 한 판씩이요’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외치라고 내 자신이 입으로 외치면서 가르쳐주기까지 하였다. … (중략) … 신문에 는 논설·광고·물가시세·관보·외국통신·잡보 등이었는데, 물가 시세와 관보는 두 사람의 기자가 재료를 구해 왔고, 그 외에 논설이며 모든 것은 내가 혼자 원고를 썼으므로 잠시라도 쉴 틈이 없었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독립신문』의 기사 작성과 편집은 대부분 서재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독립신문』 논설에 실린 내용을 분석하여 서재필의 사상을 논하는 논문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이광린의 연구(1978)이다. 그러나 서재필의 이 진술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라고 하면 자신의 과거 행적이

대해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서전의 기록을 사료로 사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와 사료 비판이 요구되는 법이다. 더구나 서재필의 자서전은 미군정기에 잠시 귀국했을 때 구술한 것으로 『독립신문』 발행 당시와는 5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미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시간적으로 오래된 일들을 구술하다 보니 본의 아닌 오류도 많을 위험이 크다. 실제로 주진오의 연구(1991)에 의하면 서재필의 자서전에는 사실 관계에서도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독립신문』의 지면 제작을 서재필이 혼자 다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재필은 과거 경력을 통해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에 유학해서도 사관학교를 다녔고,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그 후 의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의 편집, 제작이나 인쇄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채백, 1992). 그러므로 서재필이 신문의 편집이나 제작, 인쇄에 관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서재필이 신문 제작 과정의 모든 일을 자신이 했다고 언급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국문학 연구자인 김인선이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창간호 논설이 중간 정도에서 약물로 구분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말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반부에는 ‘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후반부에는 ‘국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 구사에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창간호 논설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현종민, 1990: 127~128).²⁾

당시 신문들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격일간을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기에는 벅찬 것이다. 10일에 한 번씩 발행된 『한성순보』의 경우도 이렇던

2) 김인선(1996)도 나중에는 이러한 주장을 접고 서재필 중심으로 『독립신문』을 해석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의 연구(1969: 60~61)에 의하면 책임자 김만식을 포함하여 5명가량의 인력이 참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국신문』의 경우도 최기영(1991: 47)에 의하면 창간 당시인 1898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도 사장과 기자, 탐보원을 포함해서 5명을 넘고 있다. 당시 영문판까지 발행했던 『독립신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수준의 인력은 참여했을 것이다.

『독립신문』에 참여했던 인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담긴 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에서 해고하고 『독립신문』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움직임을 간파한 주한 일본공사관은 발 빠르게 『독립신문』을 인수하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긴 한 문서(『주한일본공사관기록』(機密本省往信) 1898년 1월 15일조 (기밀제3호) ‘獨立新聞買收ノ件’)에 『독립신문』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인건비 관련 항목을 보면 주필 봉급이 150원, 조필(언문담당)이 50원으로 되어 있으며 148원 50전이 용인(傭人)의 봉급으로 되어 있다. 이 용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가 불분명하나 조필의 봉급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서재필이 자서전(김도태, 1972: 246)에 의하면 손승용의 월급은 매달 15원이었다고 한다.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독립신문』의 고용된 사람은 계산상으로는 최소 3인에서 최대 10인 정도까지라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인쇄 기술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창간 초기 『독립신문』에 고용되어 참여한 사람으로는 서재필 외에 주시경, 손승용, 헐버트가 있으며 얼마 후 이준일이 회계원으로 참여하였다. 서재필을 포함하면 총 5명이며 여기에 몇 명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인쇄 기술자들이 추가로 고용되었을 것이다.

『독립신문』의 창간과 발행에서 서재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대로 『독립신문』이 서재필 혼자서 기사와 논설도 다 쓰고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주시경

서재필 외에 편집진에 참여한 인물로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으로는 한글학자로 널리 알려진 주시경이 있다. 주시경이 『독립신문』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자필이력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김계근(1991)에 따르면 현재 전하고 있는 자필 이력서만 하더라도 15종에 이른다고 한다.³⁾ 15종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들을 대조해 보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독립신문』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대체로 1896년 4월에 회계 겸 교보(校補)의 일을 맡다가 후에 회계의 직함은 그만두고 총무 및 교보원으로 1898년 9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김계근, 1991: 26~27). 1896년 4월부터 채용되었다는 기록으로 봐서 창간 초부터 참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처음에는 회계 업무까지 겸하다가 뒤에 거론할 이준일이 회계원으로 들어오면서 주시경은 회계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교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직함이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교보원이란 직함이 사용된 사례가 개화기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다.⁴⁾ 당시 기자에 대해서는 ‘탐보원’이란 명칭이 많이 쓰였다. 교보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례는 이것 외에 주시경의 자필 이력서에 1906년 5월에 『가정잡지』의 ‘교보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이 잡지의 사원 명단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사장 유일선 편집 겸 발행인 신채호 그 다음으로 교보원 주시경 이름이 나오고 뒤이어 총무 김상만 회계 유명혁 그리고 필진으로 참여한 명단인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찬성원’이라는 직함으로 유일선, 장지연 외 22명이 소개되고 있다(독립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i815.or.kr/>에서 ‘교보원’으로 검색). 이를 보면 교보원이라는 직함이 서열상으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나온 『독립신문』 운영 내역에 주필과 구분하여 조필(助筆)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3) 주시경의 친필 이력서들 중 9종이 이기문 편(1976b: 711~749)에 실려 있다.

4) 이 용어는 한글 고어사전에도 안 나와 있으며 일본의 고어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주시경의 역할이 바로 이 조필에 해당된다는 신용하의 해석(1976: 18)이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 교보원은 기사 작성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주시경이 교보원으로 있던 『가정잡지』에 주시경의 기명으로 기재된 글이 『주시경전집』(하, 689~710)에 보면 3건 실려 있다. ‘빅과강화’란에 실린 ‘국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3호(1906년 8월 25일 발행)와 5호(1906년 10월 25일 발행) 2번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현존하는 이 2개호에 ‘론설’란에 실린 ‘풍악과 노래’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위상’이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지문답(地誌問答)’이 게재되었다.⁵⁾ 교보원이라는 직책이 다양한 기사 작성에도 직접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독립신문』에서도 교보원으로서 주시경은 기사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주시경이 『독립신문』에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간에 주시경이 쓴 글이 지면의 논설란에 독자 투고처럼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897년 4월 22일과 24일 그리고 같은 해 9월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시경이 쓴 국문론이 각기 2회에 나누어 소개되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빅지 학당 학원 주상호씨가 국문 론을 지여 신문사에 보내엿기에 좌에 기지 흐노라’라고 표기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주상호씨가 국문 론을 지여 신문사에 보내엿기에 좌에 기지 흐노라’라고 이름만을 소개하였다.

주시경의 지필 이력서에 의하면 이 기간은 회계의 일을 맡은 때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총무의 일을 겸한 때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교보원’의 역할을 맡고 있던 때인 것은 분명하다. 교보원이 쓴 글을 지면에 게재하면서 내부의 직함이 아니라 외부의 직함으로 소개하고 일반 독자의 투고처럼 실었다는 사실은 주시경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첫 번째 가능성은 주시경이 당시 일시적으로 『독립신문』 사원의 직을 쉬고

5) 『주시경전집』에는 이 글들이 2개호 중 어느 호에 실렸는지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필자가 원본 확인도 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모호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알려진 자필이력서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주시경이 배재학당 학생의 신분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신문』의 교보원은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었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선교사 험버트의 경우처럼 비공식적으로 편집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보원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자필이력서에만 나오며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당시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즉 이 글들은 주시경이 논설의 필진으로 편집진과 상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글이므로 일반 독자의 원고로 간주했을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당시 지면에서 서재필이 기사에 등장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된다. 서재필이 기사에 등장하는 경우 ‘독립신문 사장’이라고 표기(“지나간 토요일 저녁에 독립 신문사장이 요선 관인들을 청 호야 저녁을 즐겁게 쇼일 호였는디”, 독립신문 1896년 12월 1일 잡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원’ 제선씨(“대군주 폐하를 위 호야 기도 호는디 의원 제선씨가 레비당에 가서 연설을 호되”, 1897년 1월 9일 잡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서재필이라고 이름만 소개한 사례도 있다(1897년 4월 27일 ‘교전쇼 데일츠 회의 일기’). 논설란에서도 ‘의사 서재필’이라고 소개한 아래의 경우가 있다(1896년 7월 21일, 23일).

이들 필일에 진골 사는 진스 정성우가 대조선국 너부 대신 박정양씨와 농상 공부 대신 조병직씨와 군부 대신 리윤용씨와 중추원 의관 안경수씨와 김가진씨와 대미국 의스 서지필씨를 얹어 상쇼 호였는디 ... (후략) ...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서재필의 행적에 대해서도 독립신문 사장으로서는

6) 여기서 ‘의원’이란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직분으로 행한 것을 구분해서 표기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주시경의 경우도 일반 독자의 자격으로 쓴 글이었기에 ‘배재학당 학원’이라고 표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같이 주시경도 『독립신문』 편집에 교보원으로서 기사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난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3) 헐버트

『독립신문』의 영문판에는 초창기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참여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이다. 서재필은 자신의 자서전(김도태, 1972: 246)에서 이를 “나중에는 후일에 『조선망국사』를 저술한 헐버트가 이 신문 경영에 대하여 많은 조력을 하여 인쇄 직공도 두 사람이나 빌려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자서전에서는 경영을 도와주었고 인쇄 직공을 빌려 주었다고 했지만 편집에 참여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 후 서재필의 비서를 지냈던 임창영이 남긴 서재필 전기(임창영, 1984/1987: 125)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창간 당시 인력의 부족 등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더욱 심했던 난관은 그 신문을 언문과 영어를 겸해서 출판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다행히도 서재필은 정부가 경영하는 외국어 학교의 미국인 교사 호머 헐벌로 하여금 영문판 교정을 돕도록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는 김유원이 자신의 논문(1992: 54)에서 별다른 근거의 제시 없이 헐버트가 영문판 조수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헐버트의 참여 사실은 뒤에 학계의 여러 저술에서도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임창영의 기록은 서재필의 회고담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써 다른 형태의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헐버트가 『독립신문』 영문판 편집에 참여한 사실은 헐버트 자신이 남긴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의

서한 자료들(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들이 발견된다.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험버트의 참여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가장 앞서 나온 기록은 『독립신문』의 창간 직전인 1896년 4월 5일 험버트가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기록되어 있다(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08785-161).

저는 새로운 신문이 내일 밤 인쇄되어 화요일⁷⁾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 조정해 놓았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정부 관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 건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메이(May)⁸⁾도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할 겁니다. 저는 잠시 동안 신문의 영문면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과중하다면 저는 그만 들 겁니다. 그 신문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신문의 창간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운송기관⁹⁾이 닿는 모든 지역에 신문을 파운드 당 3센트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 걸쳐 보급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8천의 구독자를 확보할 것으로 믿습니다. ... (중략) ... 구독료는 저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사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편집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를 알고 있으며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입니다. 신문이 실질적으로 창간되는 데 기여한 사람은 제이슨입니다. 그는 14년간¹⁰⁾ 미국에 살면

7) 『독립신문』 창간호를 보면 요일이 금요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착오인 것 같다. 만세력으로 확인해 보아도 1896년 4월 7일은 화요일이 맞다. 『독립신문』은 2호인 4월 9일자도 수요일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 3호인 4월 11일자부터 토요일로 요일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

8) 험버트의 부인임.

9) 철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10) 이는 착오이다. 서재필은 1885년 4월에 미국으로 가서 1895년말에 귀국했으나 10년 남짓 체류했다.

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고 제대로 된 의학박사입니다.¹¹⁾ … (후략) …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신문』의 창간 초기부터 영문면의 공식적인 편집자(editor)는 아니지만 험버트가 실무를 전부 맡아서 했다는 말이다. 그가 『독립신문』 영문판 편집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임창영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험버트는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던 『코리아 리포지터리』(*Korean Repository*)의 부편집인을 맡고 있었다. 이 잡지는 1892년 1월 선교사 올링거(F. Ohlinger)에 의해 창간되어 1년 동안 발행되다가 1895년 1월부터 아펜젤러(H.G. Appenzeller)와 존스(George Herber Jones)가 발행인으로 다시 발행되었다(한국잡지협회, 1995: 7). 험버트는 원래 조선정부의 초청으로 교사로서 1886년 7월 4일에 한국에 들어 와서 1891년까지 육영공원 교사로 활동하였고 1893년 2차 내한하여 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1897년 5월부터는 다시 한국의 관립학교 교사로서 1905년 10월까지 근무하였다. 그 이후에는 고종의 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손정숙, 1995: 129~130). 따라서 『독

11) 이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got the new newspaper all arranged so that we go to press the first time tomorrow night and it appears on Tuesday. In my last I said something about a good position but I have thought it over and as of the opinion that I can do more good where I am. I have mention it to nobody. May would rather stay where we are. I am going to take charge, for a short time, of the English pages of the newspaper but if I find it is too much, I shall stop it. I am glad to have a hand in starting such a paper for I think it will do the Koreans a great deal of good. We contracted with the gov't to have them deliver the paper at all points reached by the gov't couriers at 3¢ a pound, which is extremely reasonable. We are arranging distributing centers all over the country. I believe that within six months the paper will have 8000 subscribers. … (중략) … It must be cheap or the Koreans cannot buy it. Momentarily there is no editor but I see everything that goes in & if I like I throw out anything that does not please me. It was only on that condition that I agreed to do anything on it. The man who was instrumental in getting it actually started was Dr. Jaisohn, a Korean who had been in U.S. for 14 years & is a college graduate with honors and a full-fledged M.D.

립신문』이 창간되던 1896년 4월경에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코리아 리포지터 리』의 일만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그로서는 자신의 말대로 『독립신문』 영문면의 편집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잡지 일을 하면서 편집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자료와 정보의 축적도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 『독립신문』의 영문면은 제4면 한 면만으로 운영되었으며 난의 내용도 논설에 해당하는 ‘Editorial’과 ‘단신(Brief Notice)’, ‘관보(Government Gazette)’, ‘외신(Latest Telegram)’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유원의 연구(1992: 99, 162)에 의하면 창간 초기라 할 수 있는 1896년 영문판 논설은 총 124편인데 그중 43편이 국문판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한다.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점유이다. 이 논설들은 국문판의 논설을 번역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 밖의 단신이나 관보, 외신 등도 원 자료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번역하거나 아니면 국문판에 실린 것을 번역하면 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당시 『독립신문』 영문면의 편집이 험버트로서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맡았던 일의 범위와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여 그의 말대로 영문면을 자기가 다했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가 참여했던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창간 직후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러한 언급이 다시 등장한다. 4월 20일자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08785-163).

『독립신문』은 제 역할을 다하면서 만족할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영문면의 전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신문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 일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나 노력도 훨씬 덜 듭니다. 저는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¹²⁾

12)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ndependent is holding its own and seems to be very acceptable. No one knows that I write the whole of the English page

이 편지는 창간되고 난 얼마 뒤에 작성된 것이다. 『독립신문』에 대한 세간의 평이 긍정적이었던 사실과 함께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영문면을 자신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으므로 당분간은 계속 맡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1896년 4월 26일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독립신문』의 일이 이틀에 한 번씩 1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08785-164).

헐버트가 『독립신문』 영문판의 일을 언제까지 맡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편지들에 의하면 1896년 하반기에는 이미 이 일을 끝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6년 연말경인 12월 20일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헐버트는 이때에는 『한국의 개항』(*Opening of Korea*)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면서 “한국 역사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08785-175). 또한 그해 12월 13일 동생 에드윈에게 보낸 편지(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08785-174)나 12월 5일 부모에게 보낸 편지(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08785-173)를 보면 서재필로부터 다음 해부터 조선정부가 학부 고문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있을 거라는 비공식적 언급을 들었으나 월 250불의 급여는 적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헐버트는 『독립신문』 영문면 일을, 이때는 이미 그만 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그가 관여했던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헐버트가 『독립신문』 영문판 편집에 참여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의 편지 곳곳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왜 비밀로 했는지가 의문이다. 그해 5월 10일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영문판의 편집일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더우드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08785-167). 그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은 계약 내용 때문이 아닌가 하는

and it is exceedingly amusing to listen to comments which people make on it. I find it takes much less time and work than I had expected and I shall keep on until other arrangements can be made.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에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실무를 맡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험버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일을 했으리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는 험버트가 『독립신문』의 정식 사원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일을 맡게 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후술하겠지만 서재필은 윤치호에게 영문판 편집일을 맡아 달라고 제의했으나 윤치호가 거절한 바 있다. 그러자 서재필이 험버트에게 영문면 편집일을 맡긴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비밀로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4) 윤치호

서재필이 『독립신문』에서 손을 떼고 난 뒤 1898년 5월 12일부터 신문의 편집과 운영의 책임을 졌던 사람은 윤치호였다. 윤치호는 일찌감치 신문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신문을 창간하려 시도했던 인물이다. 미국 유학 후 상해에 체류하던 시절인 1894년 8월 24일의 일기를 보면 “오늘날 한국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유능한 군대와 애국적인 신문 그리고 철저한 교육제도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5일 뒤인 29일자의 일기에서는 그가 귀국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언급하면서 그 중 하나로 신문을 즉시 간행하는 일을 꼽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윤치호는 1895년초 귀국을 앞두고 중국에서 간행되는 신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기까지 하였다(『윤치호일기』, 1895년 1월 4일조). 그러나 그의 이러한 계획은 1895년 2월 귀국한 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하였으나 미국 공사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채백, 1992: 293~294).

윤치호는 『독립신문』의 창간 준비 과정에서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서재필이 그를 찾아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창간 준비 초기라 할 1896년 1월 28일 서재필은 윤치호를 만나 신문창간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윤치호일기』 1896년 1월 28일조). 하지만 이때 윤치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나 이 제의를 선뜻 수용하지는 않았다. 자신은 기관차를 몰지 못하는 것처럼 신문 운영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귀국 전 신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도 하였고 신문 창간을 시도하였으며 후에 서재필이 귀국한 다음에는 실제 『독립신문』의 간행을 맡게 되는 윤치호가 신문에 관해 잘 모른다고 한 것은 거절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오히려 윤치호는 자신의 신문 창간 계획도 미국 공사 등의 반대로 좌절된 데다가 당시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신변의 불안을 느꼈던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신문』이 무사히 창간되고 사회적 반응도 긍정적인 가운데 정착되어 가자 이후 윤치호도 생각이 바뀌어 『독립신문』에 참여하고픈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897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독립신문』을 폐간시키거나 서재필로 하여금 손을 떼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⁴⁾ 그러면서 서재필도 독립신문사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치호는 “그(서재필을 말함)가 가야 한다면 『독립신문』의 국문판을 내가 맡고 싶다”(Told him I would like to take up the Korean part of the Independent if he should go)고 서재필에게 먼저 말을 건넌(『윤치호일기』 1897년 12월 18일조) 정도로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서재필도 1897년 말과 1898년 초에는 신문사를 외국인에 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다. 외국인에게 넘기게 되더라도 그 외국인에게 윤치호를 고용할 것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윤치호일기』 1898년 2월 28일조)¹⁵⁾. 그 후 서재

13) 원문은 “Met Dr. Jaisohn, the ‘General Bureau of Informations’ to the august members of the Privy Council(中樞院). He asked to associate with him in starting and running a paper partly English and partly Korean. When I told him that I know no more about running a paper than about running a locomotive, the Doctor confidently assured me that he would do the running all O.K. and that I should look after the translation department. He expects to start it by the 1st of March. He thinks we were fools not to start one sooner”라고 되어 있다.

14)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신용하, 1976을 참조 바람.

15) 이 과정에서 서재필은 헐버트의 동생 아처 헐버트(Archer Hulbert)와도 접촉했던 것 같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機密本省往信) 1898년 1월 15일조(기밀제3호) ‘獨立新聞買收ノ件’을 보면 당시 서재필은 아처 헐버트와 접촉했던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아처 헐버트는 당시 미국 신문의 통신원으로 내한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필은 『독립신문』을 매도할 생각을 접고 자신의 소유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윤치호에게 주필의 직책을 맡기면서 사실상의 운영까지 책임지게 하였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국문판과 영문판의 책임을 윤치호에게 넘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윤치호일기』(1898년 5월 6일조)는 기록하고 있다.

이 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과 나를 위해서 맡아 주시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요. 현 정부에서 협판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나에게 신문사를 1만 원에 넘기라고 요청하고 있소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신문을 넘기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겠소 당신이 신문을 책임지게 되면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사람들을 조심하시요. 신문을 잘 유지해서 최소한 1, 2년만 살려 주시오, 그러면 무언가 변화가 올 것이오.¹⁶⁾

이리하여 윤치호는 『독립신문』 국문판과 영문판의 주필을 맡게 되었다. 당시의 계약 내용은 『윤치호일기』(1898년 5월 11일조)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윤치호는 주필로서 연 720불을 받기로 하였으며 서재필은 회사의 주필이자 소유자(the Editor and Proprietor of the concern)로서 연 600불, 그리고 아펜젤러가 연 360불을 받기로 하였다.

윤치호는 『독립신문』의 책임을 맡은 후 1898년 7월 1일부터 발행 간격을 격일간에서 일간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논설과 잡보에 제목을 달기 시작하고 지면 편집을 개선하였다. 보도 태도면에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하는 성향을 보여 주는 등(채백, 1995)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하여

고 한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건은 무산되었다.

- 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Do this.” said he, “for the sake of the people, for your sake and for my own. It is a grand work and better than being a Vice-President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Russians ask me to sell the plant to them for \$10,000(一萬元), but I would rather starve than sell the paper to a Russian. When you take charge of the paper do abstain from politics and personalities. Hold to it and keep it alive for at least a year ar(or의 오식인 것으로 보임) two and we shall have a change.”

저널리즘으로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윤치호의 재임 기간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척하는 등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윤치호는 1897년 8월 초 독립협회에 가입(박정신, 1977: 374)하여 1897년 2월 27일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월에는 회장을 맡았던 이완용이 독립협회가 민중 주도 하의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데 반대하고 3월 11일 전라북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윤치호가 회장 대리를 맡게 되었다. 1898년 8월 28일에는 임원을 개선하면서 윤치호는 회장에 취임하였다(신용하, 1976: 95~98). 『독립신문』의 주필을 맡을 당시 윤치호는 이처럼 독립협회의 지도자로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윤치호가 회장을 맡게 된 이 시기는 독립협회가 사교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본격적인 민중 주도의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전환기였다(신용하, 1976). 그리하여 1898년 하반기에는 만민공동회를 개척하면서 독립협회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때였기에 윤치호가 독립신문 주필이 되면서 초기에는 신문의 지면과 편집에 전술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후 신문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윤치호일기』 1898년 12월 28일조를 보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⁷⁾

지난 10월 하순부터 만민공동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독립신문』을 제대로 살필 여유가 없었다. 최근 내가 사무실을 거의 비움으로써 콕(George Cobb)에게 때로는 아펜젤러에게까지 교정 등의 부담이 주어졌다. 신문도 나도 최근의 상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아펜젤러와 상의하여 『독립신문』 영문판을 잠시

17)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the People's Meeting began in the latter part of October I have had no time to look after the "Independent" properly. Of late my constant absence from the office threw the proof reading etc. on the shoulders of Mr. Cobb and sometimes on Mr. Appenzeller. Both the paper and I suffer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After consulting with Mr. Appenzeller, I decided to suspend the English edition of the Independent for the time being.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¹⁸⁾

독립협회 운동이 이렇듯 민족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자 당시의 수구파 정권은 탄압에 나서게 되었다. 1898년 11월 4일 주요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 17명의 간부를 구속하고 뒤이어 독립협회를 혁파하였다. 이때 윤치호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는데 미리 알고 도피하였기 때문이다(신용하, 1976: 99). 이후 윤치호는 자신이 덕원부사 겸 원산 감리로 임명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독립신문』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부모들이 윤치호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독립신문』을 그만두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 그리고 미국 공사 알렌의 충고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알렌은 『독립신문』에 대한 어떠한 손상도 강력히 항의하겠지만 종사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할 수 없다며 윤치호에게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였다(『윤치호일기』, 1899년 1월 7일, 9일조).

이렇게 하여 윤치호는 그만 두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이 결정을 서재필에게 알리면서 “문제는 내가 원산으로 가느냐 한성에 남느냐가 아니라 원산에 가느냐 다른 곳으로 가느냐이다. 다시 말해 나는 당분간 한성을 떠나야만 한다”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다(『윤치호일기』, 1899년 2월 10일조)¹⁹⁾. 이렇게 하여 그의 재임 기간은 약 8개월로 짧게 끝나고 말았다. 신문에 대해 포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임했지만 제반 여건상 신문에 전념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그나마 일찍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8) 실제로 『독립신문』 영문판은 1898년 12월 29일자 2면을 발행한 후 한동안 휴간에 들어가 약 5개월여가 지난 뒤인 1899년 6월 8일자로 속간호를 발행하여 이후 주간으로 발행하였다.

19) 또한 윤치호는 그만두면서 회계를 정리하여 아펜젤러가 관리하고 있던 서재필의 구좌에 490불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5) 아펜젤러

윤치호가 그만둔 후 『독립신문』 국문판은 아펜젤러가 주필을 맡아 계속 발행하였다(신용하, 1976: 72). 한편 영문판은 1898년 12월 29일자 2면을 발행한 후 한동안 휴간에 들어갔다. 이때 아펜젤러가 주필을 맡았던 배경이나 과정을 명확히 밝혀줄 자료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딱히 책임자가 없는데 서재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독립신문』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아펜젤러가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아펜젤러는 1895년에는 『코리아 리포지터리』의 편집일을 맡았으며, 1897년에는 한국어로 된 종교신문 『조선 크리스토크회보』를 창간하여 당시 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달리 맡을 책임자가 없자 아펜젤러가 맡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원래 아펜젤러는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왔다.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사로 1884년 한국에 파견되었다. 한국에 와서는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교육에 참여하면서 협성회와 YMCA 운동을 통해 청년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인물이다(임선화, 2000: 69).

이때에 아펜젤러가 『독립신문』을 맡았던 것은 서재필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독립신문』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맡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당시 아펜젤러는 서재필의 한국내 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서재필이 남긴 한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재필이 1914년 10월 21일 필라델피아의 조셉 정킨(Joseph de F. Junkin)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서재필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저는 브링커(Brunker) 씨에게 한국에 있는 저의 자산에 대해 저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대행을 해 달라고 권한을 준 일이 없습니다. 전에도 귀하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쪽 방면에 있어서 저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은 고(故) 아펜젤러(Appenzeller) 씨뿐이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독립기념관 문서번호 1-B00434-040). 이 편지는 당시 총독부가 한성 내 외국인 소유 자산을 등록시키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주고받은 편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서재필이 떠나고 윤치호가 맡으면서 아펜젤러에게도 연 360불

을 지급하기로 했던 계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서재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치호가 그만 둔 이후 아펜젤러가 『독립신문』을 맡았던 이유 중에는 이러한 사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6) 기타의 외국인 참여자들

1899년 6월 1일부터는 영국인 엠벌리(H. Emberley)가 사장에 취임하였다. 『독립신문』 1899년 6월 1일자부터 3일자까지 실린 1면의 ‘본사 교칙’을 통해 “광무 三년 六월 一일 브터 영국인 엠벌레씨가 독립 신문사 사장이 되야 본사 스무를 모도 주관 하기로 이에 광포 호오니 스방 첨군즈는 다 조량 하시옵”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영국인 엠벌리가 사장이 되어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엠벌리는 1898년 6월부터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의 인쇄 감독을 맡고 있던 자였다(『The Independent』 1898. 6. 14 3면). 그가 취임하면서 영문판도 6월 8일자부터 속간하여 주간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엠벌리는 근본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었다는 것 같다. 『윤치호일기』 1899년 12월 31일조를 보면 영문판이 문법이나 철자법, 구두점도 엉망이라고 평가하면서 엠벌리는 천박하고 잔인한 성품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Mr. Emberley made himself detested by everybody in the office for his vulgarity and brutality)고 적고 있다.

그밖의 비공식적인 참여 외국인으로는 콕(George Cobb)이 있다. 앞에서 인용한 『윤치호일기』 1898년 12월 28일조에 윤치호가 신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교정 등의 일로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된 인물이다. 이 인물은 당시 삼문출판사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이는 『독립신문』 영문판 1899년 6월 8일자 광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면에 실린 ‘알림(Notice)’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콕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을 비우게 되면 삼문출판사의 일은 아펜젤러와 스웨러(W. C. Swearer)가 대행하게 될 것임을 공지하고 있다.

이 광고로 미루어 볼 때 곱은 삼문출판사에서든 책임자급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삼문출판사와 독립신문사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독립신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와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 기타의 한국인 참여자들

『독립신문』 편집에 참여했던 그밖의 한국인으로는 손승용(孫承鏞)이 있다. 서재필은 자서전(김도태, 1972: 246)에서 손승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자는 손주사²⁰⁾ 외에 한 사람이었고 손주사의 보수는 매삭 15원이었다. … (중략) … 손 기자의 임무는 사내 각 상점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그날그날의 물가 시세를 조사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었고 … (후략) …

손승용의 역할은 기자였으며 물가 정보를 취재하여 기사화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손승용이 『독립신문』에 참여했음은 윤치호도 자신의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1917년 1월 13일자를 보면 손승용 목사를 집으로 점심 초대하였다고 적으면서 그는 독립신문사의 기자(writer)였다고 회고하고 있다.²¹⁾ 이 손승용은 독립신문에 오랫동안 재직했던 것 같다. 『황성신문』 1899년 7월 19일자 잡보란을 보면 ‘피착선방(被捉旋放)’이라는 제목으로 “再昨日에 獨立新聞社社員 孫承鏞氏가 무슴 事인지 警廳에 被捉호았다가 再日 下午에 放호았더라”고 보도하고 있다. 1899년 7월 하순경까지 독립신문사의 사원이었음을 알

20) 손승용을 이러한 호칭으로 불렀던 것은 그가 관리 출신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1898년 11월 29일부로 중추원 의관에 선임되기도 하였다(『황성신문』, 1898. 12. 2, 2면).

21) 원문은 “Invited 孫承鏞牧師 and 李康浩 to lunch at home. 孫 used to be a writer in the 獨立新聞社.”라고 되어 있다.

수 있다. 거의 폐간 직전인 이때까지 재직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로 미루어 손승용은 아마도 창간 때부터 폐간 때까지 계속 편집에 참여하여 취재와 기사 작성을 맡았던 거의 유일한 인물인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이준일이라는 인물은 독립신문사의 회계 업무를 맡았었다. 윤치호는 그를 일컬어 ‘충직한 회계원(the faithful treasurer in the Independent Office)’이라고 평하였다(『윤치호일기』 1899년 12월 31일조).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이준일이 『독립신문』의 회계를 맡게 되면서 주시경은 회계의 일을 그만두고 총무 겸 교보원의 일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겠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독립신문』 편집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독립신문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진 인물은 서재필, 주시경, 윤치호, 헐버트, 손승용, 이준일, 아펜젤러, 엠벌리, 콤포로 연인원은 총 9명이었다. 한국인이 5명이고 외국인이 4명이었다. 이중 사장이나 주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순서대로 창간부터 서재필, 1898년 5월 12일부터 윤치호, 1899년 1월경부터 아펜젤러, 1899년 6월부터 엠벌리이다.

그밖의 편집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는 먼저 국문판에 주시경과 손승용이 초창기부터 참여하였다. 이중 주시경은 초기에는 회계의 일도 겸했으나 이준일이 참여한 이후 총무와 편집일을 맡아서 국문판 편집에 참여하다가 1898년 9월경에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손승용은 유일하게 창간부터 폐간까지 계속 참여했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역할은 주로 취재와 단신성의 기사 작성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문판은 창간 초기에는 헐버트가 편집일을 몇 달간 맡았었다. 그가

22) 앞서 인용한 서재필의 회고에서 밝힌 바대로 손승용 외에 기자가 한 사람 더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주시경을 말하는 것인지 제3의 인물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

그만 둔 이후로 영문판 편집은 따로 참여한 인물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어 구사가 가능했던 주필들 즉 서재필과 윤치호, 엠벨리가 영문판 기사 작성과 편집을 맡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898년 하반기에는 삼문출판사의 콕이 일시적으로 영문판 교정에 참여하였다. 그밖에 이준일은 회계 업무를 맡았었다.

이 결과들을 시기별로 재정리해 보면 서재필 사장 재임기에는 주시경과 손승용이 함께 하였으며, 헐버트가 초창기 몇 달간 영문판 편집에 참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윤치호 주필 시기에는 주시경이 몇 달간 함께 하다가 그만 두었고 손승용이 함께 하였으며 아펜젤러와 콕이 일시적으로 도와주었다. 아펜젤러와 엠벨리 재임기에는 손승용 외에는 누가 참여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던 것을 집약하여 몇 가지 새로운 사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고 각 개인별로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문제제기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의 편집진에 관해서는 아직도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주시경이나 손승용이 과연 논설 필진에 참여했는지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반기로 가면서도 누군가가 참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집에 참여한 인물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보다 연구를 심화하여 체계적인 문체 분석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국문학계에서 일부 문체 분석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서재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론적인 입장이 너무 강한데다가 특정 논설을 서재필이 쓴 것이라고 전제한 이기문(1990)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이를 토대로 다른 논설들의 문체를 분석하고 있다(김인선, 1996).

따라서 우선 『독립신문』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체 분석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 예컨대 논설을 대상으로 어휘나 종결 어미의 사용

등의 문체 분석을 하면 필진에 참여한 사람이 시기별로 전부 몇 사람이나 되는지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참여 인물들의 다른 글들과 비교하여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쓴 것인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각시등록(各司謄錄) 근대편』 청의존안(淸議存案).

『독립신문』, 『황성신문』.

『The Korean Repository』.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윤치호일기』.

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독립기념관 홈페이지(www.i815.go.kr).

김계곤 (1991). 한헌샘 주시경 선생의 이력서에 대하여. 『한헌샘 주시경 연구』, 제4집, 5~59.

김도태 (1972). 『서재필박사자서전』. 서울: 을유문화사.

김복수 (2000). 유길준의 개화운동과 근대신문 창간에 미친 영향. 『한국언론학보』, 44권 44호, 5~31.

김유원 (1992). 영문판 독립신문의 논조에 관한 연구: 논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인선 (1996). 서재필과 한글전용. 『현상과 인식』, 제20권 1호, 89~107.

박정신 (1977). 윤치호연구. 『백산학보』, 제23호, 341~388.

손정숙 (1995). 구한말 험버트(Homre B. Hulbert)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 연구』, 제22집, 127~147.

신용하 (1976). 『독립협회연구』. 서울: 일조각.

이광린 (1969). 『한국개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이광린 (1975).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진단학보』, 39집, 69~103.

- 이광린 (1978). 서재필의 개화사상. 『동방학지』, 제18집, 1~60.
- 이기문 편 (1976a). 『주시경전집 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 이기문 편 (1976b). 『주시경전집 하』. 서울: 아세아문화사.
- 이기문 (1990).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현종민 편. 『서재필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46~66.
- 임선화 (2000). 선교사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인식: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전남사학』, 제14집, 67~95.
- 임창영 (1984). *Philip Jaisohn: the First Korean-American, a Forgotten Hero*. Seoul: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유기홍 역 (1987). 『위대한 선각자 서재필 박사 전기』. 서울: 공병우 글자판 연구소.
- 정진석 (1983). 『한국언론사연구』. 서울: 일조각.
- 주진오 (1986).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의 구조와 전개. 『학림』(연세대), 제8집, 69~105.
- 주진오 (1991). 서재필자서전. 『역사비평』, 1991년 가을, 297~307.
- 채백 (1992). 『독립신문』의 성격에 관한 일연구: 한국 최초의 민간지라는 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 창간호, 284~309.
- 채백 (1995). 『독립신문』 잡보의 내용 및 보도 방식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35호, 5~36.
- 한국잡지협회 (1995). 『한국잡지100년』. 서울: 한국잡지협회.
- 현종민 (1990). 『서재필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초 투고 2006.8.27, 최종 원고 제출 2006.10.25)

A Study on the Editorial Staffs of *The Independent*

Baek Cha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o had participated as members of the editorial staffs and their role in the Independent. In spite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Independent, this topic was not treated properly by related studies. Moreover many studies mainly based on the Philip Jaisohn's autobiography showed the tendency to overemphasize his role. This study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by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some new docu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9 persons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t. They are Philip Jaisohn, Joo Si-kyung, Yoon Chi-ho, Homer B. Hulbert, Son Seung-yong, Lee Jun-il, Henry Gerhart Appenzeller, H. Emberley and George Cobb. Five person including Jaisohn were Koreans and the rest were foreigners. Hulbert took part in editing English edition confidentially during some month from the beginning. Son Seung-yong seems to be the only one man to participate from beginning to end. Lee Jun-il was not a editorial staff but a treasurer, and Cobb participated temporarily in proofreading. Hulbert and Cobb were not official staff.

Key words: The Independent, editorial staff, Philip Jaisohn, Joo Si-kyung, Homer B. Hulbert, Henry Gerhart Appenzeller, media history